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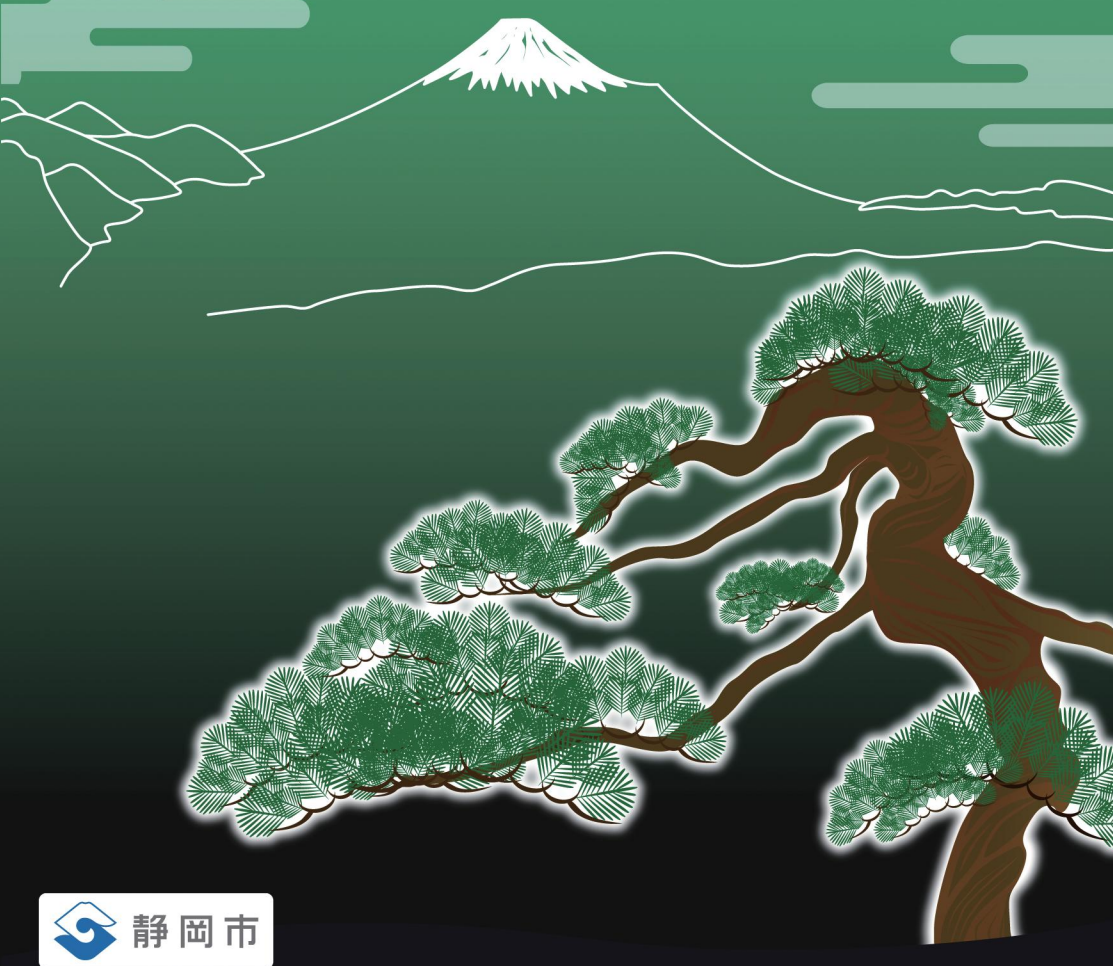
한국어



# みほしるべ

MIHO  
SHIRUBE

静岡市三保松原文化創造センター  
Shizuoka City Miho no Matsubara Culture & Creativity Center



Miho no Matsubara Culture & Creativity Center



## 시즈오카시미호의마쓰바라문화창조센터 이름의 유래

미호의 마쓰바라 가치 및 매력 알리기, 보전 개발의 일본 국내외 어필을 통하여, 미호의 마쓰바라를 차세대에 계승함과 동시에 새로이 전 세계에서 미호의 마쓰바라를 방문하는 사람들과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하여, 미호의 마쓰바라의 문화적인 가치와 자연적인 가치를 융합하고, 갈고닦은 새로운 매력을 갖춘 '미호의 마쓰바라 문화'를 창출해 나가고 싶은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 미호 길잡이

이 이름에는 '미호를 알다' + '길잡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방문해주신 여러분이 이곳에서 미호의 역사문화와 소나무에 대해 이해하고 후지산과 마쓰바라의 아름다운 경관을 안내하는 장소로 기능하며, 나아가 미래를 향해 마쓰바라를 보전하고 문화를 창조하는 이정표를 표시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인사 말씀

'미호 마쓰바라'는 나라시대(710~794)부터 백사청송과 신성한 후지산의 훌륭한 조망으로 전국에 그 이름을 알렸으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본인이 이 경치에 감동하고 영혼에 그 경치를 각인시켜왔는지는 현대에 전하는 수많은 시가, 회화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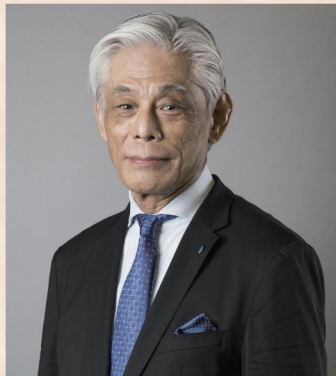
그리고 그 현저한 보편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2013년 6월에 세계문화유산 '후지산 - 신앙의 대상과 예술의 원천'의 구성 자산으로서 등록되었습니다.

금번에 완성한 '미호의 마쓰바라 문화창조센터'는 '미호 마쓰바라의 현관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명승 및 세계문화유산 구성 자산으로서의 가치와 매력, 마쓰바라 보전의 소중함을 여러분께 알기 쉽게 안내드리고, 후대에 계승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미호 마쓰바라'가 예술 창조에 영감을 줬던 것처럼, '미호 마쓰바라'에서 새로운 문화의 창조로 이어지는 활동을 수행하는 '미래지향적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시즈오카시미호의마쓰바라문화창조센터 명예관장

곤도 세이치 (近藤誠一)



## 전시실

### 미호의 마쓰바라로 초대

전시실로 이어지는 복도는 훑날리는 날개옷에 솔향이 나면서, 신비로운 세계로 이어진 입구로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영상 시어터

■ 미호의 마쓰바라와 그곳에서 바라보는 웅장한 후지산의 모습을 담아냅니다.

미호의 마쓰바라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십시오.  
(상영시간 약 3분)

■ 미호의 마쓰바라와 후지산의 관계에 대해 해설합니다.  
미호의 마쓰바라의 경관에서 태어난 '미'의 세계를 느껴 보십시오.  
(상영시간 6분)



### 1층 전시실

미호의 마쓰바라의 문화 및 예술에 대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 1 미호의 마쓰바라(三保松原)
- 2 후지산 신앙과 미호
- 3 하코로모(날개옷) 전설
- 4 예술의 원천
- 5 널리 사랑받는 미호의 마쓰바라
- 6 미래 세대 전승

### 2층 전시실

마쓰바라의 보전 및 소나무의 생태에 대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미호의 향토역사 및 연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나무의 나이테와 미호의 마쓰바라의 지하 단면 표본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호의 마쓰바라 관련 도서코너와 만지면서 놀 수 있는 소나무를 사용한 악기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 극장형 음성가이드

제공 주식회사 Otono

1층 전시실을 선녀(天女)와 백룡(白龍)이 음성으로 재미있게 안내합니다.  
일본어·영어·중국어(번체)·한국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관내 음악 '오토노키' 외

후지산, 송림, 푸른 바다, 파란 하늘, 아름다운 해변가, 그리고 날개옷 설화. 전 세계에 사랑할 만한 아름다운 일본의 경치인 미호의 마쓰바라의 이미지를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하고, 미호의 마쓰바라 문화창조센터의 공간을 연출할 수 있을지가 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타악기'라는 가장 원시적이고 자유로운 필드에서 작곡 및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의 특징을 더 '음(音)' '으로서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 토지에서, 그 토지의 소재를 사용하여 음을 찾아내 음악으로 삼는' 것을 하나의 테마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호의 마쓰바라에서 모은 바다의 소리, 송림의 바람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신의 거리의 소나무 토목으로부터 만든 악기 소리를 악곡에 넣었습니다.

그 토지의 소재로 음을 만들고, 음악에 도입하는 것은 타악기의 세계에 크게 열린 하나의 가능성으로, '음의 지산지소(地産地消)'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타악기 연주자 나가이 도모 (永井朋生)

#### ■ 프로필

시즈오카현 슈젠지 출생. 도쿄예술대학대학원 수료, 타악기 연주자. 음악 관련 장면부터 다양한 장르에 걸쳐 세션 및 리코딩 참가. 인도네시아·브라질·프랑스·아이슬란드·리투아니아 투어 등 해외 공연 다수 실시. 일본 국내 라이브 및 아트 이벤트 연주, TV 및 영화, 공공시설에 악곡 제공 등 왕성하게 활약 중. 자연의 것을 소재로 악기화하여 미지의 음을 이끌어내는 즉흥연주는 내추럴 사운드·크리에이터라고 부르기엔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 일본 국내 및 유럽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하고로모(날개옷) 전설

옛날 옛적에 미호의 작은 마을에 하쿠료라는 젊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소나무 가지에 아름다운 옷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가 옷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 돌연 선녀가 나타나 “그 옷은 천계에 사는 사람들이 입는 날개옷입니다. 부디 돌려주세요.”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쿠료는 그녀의 이야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선녀는 울기 시작하였고 “날개옷이 없으면 저는 하늘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발 그 옷을 돌려주세요.”라고 울며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쿠료는 “만약 당신이 천인의 춤을 춰준다면 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선녀는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날개옷이 없으면 춤을 출수가 없습니다. 먼저 날개옷을 돌려주세요.” 선녀에게 하쿠료는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먼저 날개옷을 돌려준다면 당신은 저에게 춤을 보여주지 않고 바로 날아가버릴게 틀림없어요.” 그러자 선녀는 말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것은 인간뿐입니다. 저희 천인들은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쿠료는 선녀의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선녀의 옷을 돌려주었습니다. 선녀는 기뻐하며 아름다운 봄의 경치를 배경으로 선녀의 춤을 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후지산을 넘어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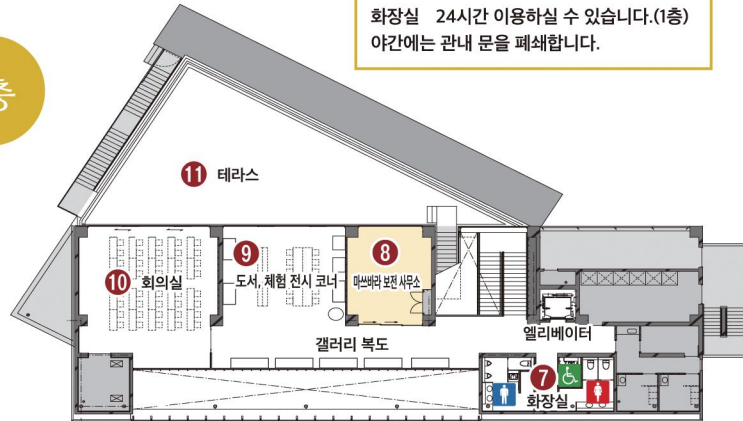
대배전(大拜殿) 천장화  
1805-1814  
시즈오카 센겐 신사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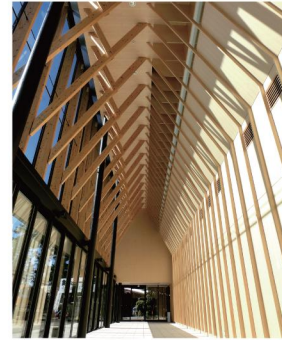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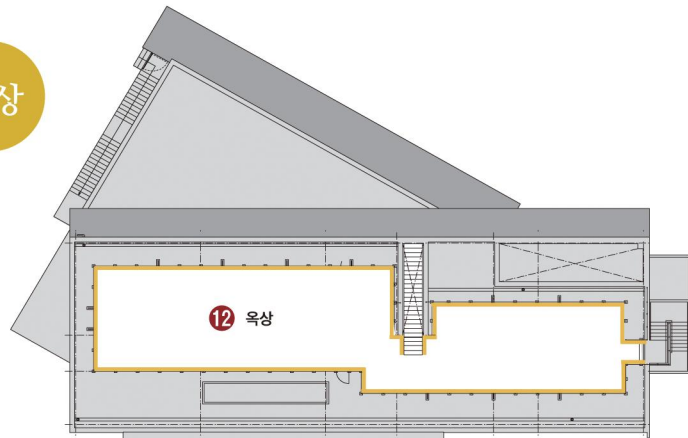


화장실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1층)  
야간에는 안내 문을 폐쇄합니다.

2층



옥상



현관 통로



족욕 코너

1 현관 통로

우키요에 등을 전시하는 갤러리입니다.

2 족욕 코너(토·일요일, 휴일만 9:30~16:30)

마쓰바라를 바라보며 족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산책을 마친 후 발을 담가보세요.

3 종합안내

안내 및 미호의 마쓰바라 주변, 나아가 시즈오카 시내 관광명소를 안내합니다.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4 뮤지엄 기념품 숍

미호의 마쓰바라 문화 창조 센터에서만 살 수 있는 기념품 등, 미호의 마쓰바라와 연관 깊은 상품을 판매합니다.

5 수유실

부스를 2곳 마련하였습니다.

6 물품보관함(9:00~16:30)

짐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9:00 ~ 16:30) 투입한 동전은 짐을 빼실 때 반환됩니다.

7 화장실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층)

8 마쓰바라 보전 사무소

마쓰바라의 보전과 관련한 거점 장소입니다.

9 도서, 체험 전시 코너

마쓰바라에 관한 전시가 있습니다. 현미경을 들여다보거나, 소나무로 만든 악기를 만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미호의 마쓰바라 관련 서적도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회의실

이용에 관해서는 문의 주십시오. 단, 영리 목적의 활동, 정치/종교적 활동 목적으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11 테라스(9:00~16:30)

마쓰바라를 가까이서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12 옥상(9:00~16:30)

날씨가 맑은 날에는 아름다운 후지산 경관을 조망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분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미호의 마쓰바라 (三保松原)'

## 미호의 마쓰바라(三保松原)'

미호는 후지산 정상에서 남서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시즈오카 현 시즈오카 시 시미즈 구에 위치한 반도로, 연안의 약 5km에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다.

이 소나무 숲이 '미호의 마쓰바라(三保松原)'라고 불리며 소나무 숲 중앙 부근에 있는 '하코로모노 마쓰(날개옷 소나무(羽衣の松))'는 선녀와 인근에 사는 어부의 만남을 그린 '날개옷 설화'의 무대로 특히 유명하다.

'해안의 소나무 숲 너머로 후지산을 구경할 수 있는 풍치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다이쇼 11년(1922년)에 일본 최초의 명승지로 지정되었다.



## 명승지 미호의 마쓰바라

풍치경관이 수려하여 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토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한 곳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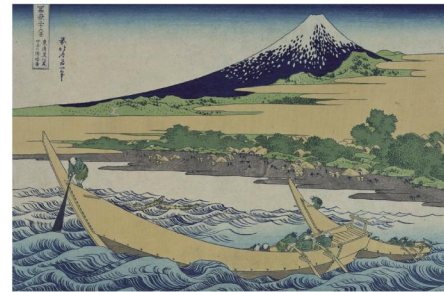
문화재 보호법이 규정한 국가 지정 문화재 중 하나이다.



## 소나무와 일본 문화

일본에서는 겨울에도 푸르름을 간직하는 상록수인 소나무가 신이 내린 신성한 나무로 여겨져, 가도마쓰(門松) 등 설맞이 장식을 비롯하여 혼사, 출산 축하 시에도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다.

소나무는 중국에서도 길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청렴하고, 고상한 품격의 의미를 지닌 장수의 상징이다.



후가쿠 36경(富士三十六景) 도카이도 에지리 다고노우라 약도  
가쓰시카 호쿠사이  
덴포 원년-덴포 3년(1830 - 32) 경  
도쿄국립박물관  
Image: TNM Image Archives

## 미호의 마쓰바라(三保松原)'

옛적부터 후지산을 조망하는 성지였던 미호의 마쓰바라는 선녀 설화로 아름답게 승화되었고 옛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 미호 신사(御穂神社)

미호 신사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조정을 필두로 이마가와, 도쿠가와 등의 무장들도 숭배하였다. 게이초 연간(慶長年間 /1589~1615)에는 도쿠가와 막부가 본전(本殿)을 포함한 웅장한 신전을 세웠으나, 간분(寛文) 8년(1668년)에 소실되었다.

현재의 신전은 에도 시대에 재건된 것으로, 시즈오카 시의 유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신사에는 선녀의 '날개옷 자투리'라고 전해지는 오래된 형겔 조각이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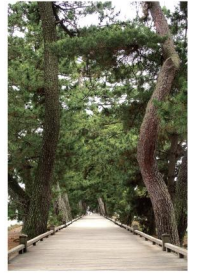


미호 신사(御穂神社)

## 신도(神道)

신이 하구루마 신사에서 미호 신사로 향하는 길. 길 양쪽에는 수령 200~300년의 노송들의 가로수길이 500m 가량 이어진다.

매년 2월 14일의 늦은 밤에 날개옷 소나무 앞에서 신을 맞이하는 의식이 열리는데, 이는 바다 저편에서 건너온 신이 신도를 통해 미호 신사를 찾아올 수 있도록 마중을 나가는 것으로 여겨진다.



신도(神道)

## 날개옷 소나무

날개옷 소나무는 미호 신사를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남쪽으로 난 소나무 길, '카미노미치(신도)' 끝자락의 해안에 있다. 초대 날개옷 소나무는 호에이 4년(1707)의 후지 호에이산 분화 때 바닷속으로 수몰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대째 날개옷 소나무도 2013년에 수명을 다해 현재의 날개옷 소나무는 3대째이다.



날개옷 소나무



2대째 '날개옷 소나무' 그림엽서(개인 소장)

## 하구루마 신사

시즈 2대째 '날개옷 소나무' 옆에 자리한 미호 신사의 별궁. 세워진 연도는 알 수 없으나, 가마를 타고 미호 해안에 내려온 신을 국토 평화를 위해 미호 신사에 모셨는데 그 별궁으로서 하구루마 신사가 건립되었다.



하구루마 신사

고대 중국 사상의 영향을 받아 후지산은 호라이 산(蓬萊山)이라고도 불렸으며 신선이 사는 것으로 여겨졌다. 신선이 사는 후지산과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와 같은 존재가 미호의 마쓰바라였다.

미호의 마쓰바라는 항상 후지산과 함께 그려졌는데 후지산으로 향하는 입구임을 뜻하였다.

### 겐본 초쇼쿠 후지 만다라즈

(絹本着色富士曼荼羅圖)

본 작품은 바깥 입구에서 바라본 경관을 그린 것으로, 그림 하단부에 세이켄지(清見寺), 스루가 만, 미호의 마쓰바라를 그렸고, 후지산 정상은 3개의 봉우리로 그려내어 명승지 회화의 전형적인 구도를 취하고 있다.

후지산 내에 그려진 건물은 안개로 인해 나뉘어져 있는데, 험난한 산형을 나타냄과 동시에 아래에서 위를 향할수록 성스러운 영역임을 강조되는 구조이다.



무로마치 시대(16세기)  
후지 산혼구센겐 대사

### 젠조즈(禪定図)에 그려진 미호

18세기에 접어들어 서민들의 신앙 등산 '등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미호의 마쓰바라는 도카이도나 서부 지역에서 오는 순례자들에게 후지산 등배 시 중요한 장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본 후지산 젠조즈(富士山禪定圖)는 등배자들의 안내도로 배포된 것 중 하나로, 그들의 기념품이 되기도 했다. 그림 왼쪽 하단부가 안내도의 출발점으로, 시즈오카 현보다 서쪽에서 찾는 참배자들에게 시즈오카 쪽으로부터 등산하게끔 유도하는 내용이다. 이 출발점에는 미호의 마쓰바라와 미호 묘진(三保明神)이 소개되고 있다.



산고쿠 다이이치 후지산  
젠조즈  
에도시대(19세기)  
오야마초 교육위원회



무로마치 시대에 성립되었으며 미호의 마쓰바라를 무대로 한 '능악(能)' 작품이다.

### 설화의 성립

미호의 마쓰바라는 후지산, 마쓰바라, 해변이 한데 모인 명소로 유명하였다.

전국에 날개옷 설화가 널리 퍼졌는데 능악극 작곡가는 아름답고 신성한 풍경이 있었기에 미호의 마쓰바라를 무대로 삼았다. 더욱이 사내가 시기심을 부끄러이 여겨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날개옷을 돌려준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완성시켰다.

능악극 '날개옷'은 아름다운 풍광과 우아한 선녀의 춤이 하나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 당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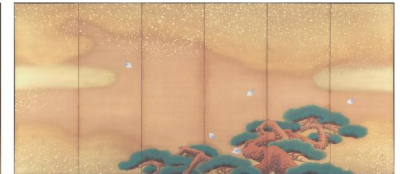


소히쓰 고주산쓰기 에지리  
(双筆五十三次江尻)  
3대 우타가와 도요쿠나·  
우타가와 히로시게  
안세이 원년(1855)  
시즈오카시

### 바다를 건너간 능악극 '날개옷'

19세기 후반에 접어들자 미호의 날개옷 설화를 테마로 한 능악극 '날개옷'은 해외에도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에이즈(1865~1939)나 파운드(1885~1972) 등 서양의 모더니즘 작가 작품에도 거론되며 일본의 전통 예술 '능악'이 전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날개옷 기무라 부잔(木村武山) 쇼와 초기(1920년대 후기 - 30년대 전기) 시즈오카 현립 미술관

다이쇼 5년(1916)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무용가 엘렌 쥬글라리스(Elene Giuglaris)는 '능악'에 심취하였다. 그리고 일본 문화를 연구하여 프랑스에서 능악극 '날개옷'을 상연하였다.

엘렌은 극장 공연 중에 무대 위에서 쓰러져 동경했던 미호의 마쓰바라를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채 백혈병으로 35세의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등졌다.

엘렌이 세상을 떠난 해에 그녀의 남편 마르셀이 그녀가 남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일본을 찾았으며, 이듬해 쇼와 27년(1952)에 프랑스인 무용가의 공적을 기려 미호의 마쓰바라에 엘렌의 비석이 세워졌다.



엘렌 쥬글라리스  
1949 시즈오카시

일본인은 옛적 후지산을 두려워하면서도 공경하여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동시에 후지산에 가진 경의심과 그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원천으로 다양한 예술을 탄생시켜 왔으나, 이 예술의 원천에 미호의 마쓰바라의 존재는 빼놓을 수 없다.

### 그림에 담긴 미호의 마쓰바라

무로마치 시대에는 후지 미호의 마쓰바라를 다룬 회화의 전통을 고찰할 때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셋슈(雪舟)의 작품으로 알려진 '후지 미호의 마쓰바라즈(富士三保松原圖)'가 완성된 것이다.

신성한 산 후지산과 이름난 절 세이켄지, 이에 미호의 마쓰바라를 조합하여 안정된 구도로 완성시킨 작품으로, 후지산과 미호의 마쓰바라를 담은 그림의 기본형으로서 많은 모사 작품이 그려졌고 후대의 후지산 회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에도 시대에는 셋슈의 형태가 계승되는 한편, 새로운 후지 미호의 마쓰바라즈에 도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우키요에 풍경화의 융성에 따라 미호의 마쓰바라도 많은 우키요에의 소재로서 다루어져 서민들에게도 널리 사랑받게 되었다.

메이지 시대 이후에도 후지산과 미호의 마쓰바라를 담은 회화는 계속 그려졌다.

서양에서 들어온 유화 기법으로 일본의 풍경을 그릴 때도 미호의 마쓰바라는 역시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다.

예술의 원천으로서의 후지산, 그리고 미호의 마쓰바라는 근대를 지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계승되고 있다.



후지  
고세다 요시마쓰(五姓田義松) 메이지 38년(1905)  
시즈오카 현립 미술관



셋슈(雪舟) '후지 미호 세이켄지즈'  
무로마치 시대  
에이세이 문고



중요 문화재 가노 단유(狩野探幽)  
'후지산즈'  
간분 7년(1667)  
시즈오카 현립 미술관



고주산쓰기 메이쇼즈에(五十三次名所図会) 19번째  
에지리 / 다고노우라(田子の浦)  
미호의 마쓰바라  
우타가와 히로시게  
안세이 원년(1855)  
시즈오카 시



도카이도 고주산쓰기(東海道五十三次)  
에지리 / 도요쿠니  
3대 우타가와 도요쿠니·  
우타가와 히로시게  
안세이 원년(1855)  
시즈오카 시

미호의 마쓰바라와 후지산이 함께 그려진 모습은 에도 시대 후기가 되면서 대중들에게도 널리 보급되어 수공예품이나 인쇄물에도 그려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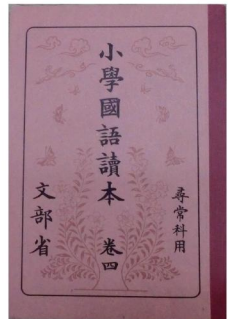
근대에 접어들자 대량 생산품의 포장지 또는 상품의 인쇄 광고물에도 후지산과 함께 그 모습이 담겼다.



계안장국

다이쇼 시대(1912~1926)에 들어서자 미호를 무대로 한 요극 '날개옷'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각색한 '하코로모'(미호의 날개옷 전설)가 국정 교과서에 실리게 되면서, 초등학교 3학년 또는 4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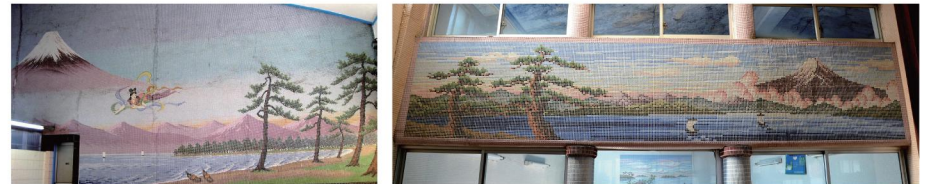
그 후, 문부성 창가에도 '신정고등소학창가' 안에 '날개옷'이 게재되어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국정 교과서 초등학교 국어 독본  
1933-1940  
시즈오카시

### 벽에 그려진 미호의 마쓰바라

일본의 대중목욕탕에 후지산이 처음 그려진 것은 다이쇼 원년(1912년)이라고 한다. 도쿄 지요다구에 자리했던 대중목욕탕 '기카이유'의 경영자가 시설을 확장하면서 '어린이들이 탕 안에서 목욕을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목욕탕 벽에 페인트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을 고안했고, 이에 시즈오카 현 출신의 서양화가 가와고에 고시로가 스루가 만에서 바라본 후지산 모습을 그렸다.



목욕탕 벽화

### 후지산 세계유산 등재

2013년 6월에 제37회 세계유산 위원회에서 '후지산-신앙의 대상과 예술의 원천-'이라는 명칭 아래 세계 문화 유산에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구성 자산이란

'후지산-신앙의 대상과 예술의 원천-'이란, 후지산과 일체화된 가치를 가진 25개 장소를 가리킨다.

산형 뿐만이 아니라, 예로부터 후지산과 연관 있는 주변 신사와 등산길, 용암 수형 등도 포함되며, 미호의 마쓰바라는 그 중 하나이다.



### 등록증명서

세계유산 위원회는 '후지산-신앙의 대상과 예술의 원천-'을 세계유산 일람표에 기재하였다. 일람표 기재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서의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지녔기에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해야 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기재일 2013년 6월 26일 유네스코 사무국장 이리나 보코바



### 우리의 각오

미호의 마쓰바라는 과거에는 무분별한 벌채로 인해 황폐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호의 마쓰바라가 명승 및 세계유산으로서 현재까지 계속 존재하는 것은 미호를 사랑하는 지역주민과 많은 분들이 힘을 합한 덕분이며, 마쓰바라를 소중히 지켜온 증거입니다.

또한 현재는 더 많은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분들이 청소활동 및 마쓰바라 보전 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일본인의 마음을 매료하는 이 풍경은 전 세계에 어필해야 하는 일본의 보물이자, 우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호의 마쓰바라를 지켜갈 것입니다.



### 이용안내

개관시간	오전 9시~오후 4시 30분
입장료	무료
개관일	연중무휴

### 이하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전시실 내 휴대폰 통화,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1층전시실 내 촬영, 삼각대 사용



전시실 내 음식료 취식



애완동물 반입

## 시즈오카시미호의마쓰바라문화창조센터 미호 길잡이

시즈오카시 시미즈구 미호 1338-45  
054-340-2100 (전화) · 054-340-2700 (FAX)

<https://miho-no-matsubara.jp/>



三保松原ホームページ